

# 부침 심한 우리나라 잡지의 현주소

하루평균 3.5종 신규등록에 1.2종 폐간... 전문지 세분화 추세 뚜렷

우리나라에서는 하루 평균 3.5종의 잡지가 신규등록되고 있으며 매일 1종의 잡지가 창간되는가 하면 또 1.2종의 잡지가 폐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하루에 평균 7종의 잡지가 발행인이나 발행처, 판형이나 제호 등을 변경등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잡지협회(회장 김영진)의 상반기 결산에 따른 것으로 우리나라 잡지의 잦은 변화와 부침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 신규등록의 30%가 미발행

일간과 주간을 제외하고 올 상반기 공보처에 신규등록한 잡지는 총 612종(유가 281, 무가 331)으로 이가운데 월간이 331종으로 가장 많고 격월간이 126종, 계간 99종, 반년간 32종, 연간 24종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신규등록 수치는 작년 같은 기간의 540종(유가 306, 무가 234)에 비해 93종이 더 등록된 것인데 이중 유가지는 4종이 줄어든 반면 무가지는 97종이 더 늘어난 것이다. 이같은 현상은 용지대 인상과, 도서대여점의 확산으로 인해 잡지 판매가 줄어드는 등 악화된 경영 여건의 영향으로 유가지 등록률은 둔화된 반면, 무가지로 만든 각 기업체의 홍보용 잡지가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공보처의 상반기 통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동안 창간된 잡지는 모두 181종(유가 86, 무가 95)으로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193종에 비해 11종이 줄어든 수치다. 특히 유가지는 26종이 줄고 무가지는 16종이 더 창간된 것으로 집계됐다. 새로 창간된 유가지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문학아카데미》《앞선문학》《열린문학》등 문학, 예술지가 12종으로 가장 많고 이밖에 《국가전략》《시사타임즈》《WIN》등 시사지가 11종으로 다음을 차지했다. 《공정경쟁》《경제분석》등 생활정보지도 8종이나 창간됐다. 잡지 시장 중 경쟁이 가장 치열한 여성지도 《쉬즈마리》, 《칼라》등 6종이나 선을 보였고, 종교지(6종), 청소년 아동지(5종), 지역지(5종), 수험. 어학지(4종), 과학지(4종) 순으로 창간됐다. 이밖에도 의학지, 교통관광, 산업지, 성인오락지, 농업지 등 세분화

100년의 역사를 지닌

우리나라의 잡지는 잦은

변동과 부침을 거듭하면서도

양적인 성장을 이루었고 점차

전문화·세분화되는 추세다.

자기만의 독특한 색깔과

수준높은 내용, 가치있는 정보를

지닌 잡지야말로 영상매체의

공세 속에서 오래도록

사랑받는 잡지로 남을 수 있다.

된 계층과 특정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잡지의 창간이 잇따랐고 대한문화사의 《GG》, 시사저널의 《THE MEN》등 남성지의 창간도 눈길을 끌었다.

우리나라 잡지의 고질적인 문제로 꼽히는 것이 잦은 변동. 상반기 동안 집계된 변경등록사항은 모두 1325건에 달해 신규등록의 두배를 넘는 수치이고 지난해 같은 기간의 1030건에 비해 295건(28.6%)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경사항 중 가장 많은 건수를 차지하는 것은 발행인 변경으로 모두 330건에 달해 전체의 25%를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이 발행처 변경으로 232건으로 전체의 17%, 인쇄인 변경이 174건으로 13%, 편집인 변경이 143건으로 10.7% 순을 차지했다. 이밖에 제호가 98건, 발행간격이 95건, 판형 81건, 전화 72건, 면수 57건 등이 변경등록됐다.

## 잦은 변경, 고질적 문제

이처럼 창간 후 변경이 많은 것은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위한 모색으로 볼 수도 있지만, 잡지 경영의 책임자라 할 수 있는 발행인 변경이 전체의 25%를 차지할 정도로 빈번한 것은 우리나라 잡지계의 경영 여건이 썩 좋지 않음을 반증하는 지표라 할 수 있다.

한편 올해 상반기에 폐간된 잡지는 총 206종으로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303종에 비해 97종이 줄어든 수치다. 극심한 불황을 겪으면서도 신규등록과 폐간이 계속



우리나라는 하루 평균 1종의 잡지가 창간되고 있다.

증가추세를 보이며 악순환을 되풀이하던 우리 잡지계의 현실에 비추어 폐간수치가 줄어든 것은 일단 긍정적인 현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아직까지 창간되는 잡지수(181종)를 앞지르고 있는 잡지의 폐간 종수는 우리 잡지의 극심한 부침현상과 짧은 수명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안타까움을 더한다. 특히 이들 폐간 잡지의 70% 이상이 등록만 해놓고 잡지를 내지도 못한 채 폐간되거나 창간호만 내고 폐간되는 경우여서 잡지계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열악한 경영여건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지식이나 사전지식, 자금력 등을 갖추지 못한 채 잡지에 대한 노후나 사명감 없이 함부로 잡지 창간에 손을 대려는 사람들이 줄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결국 이러한 유명무실한 잡지의 양산과 잇따른 폐간은 잡지계의 혼란만 가중시킬 뿐 아니라 질적 발전에도 방해를 줄 뿐이라는 지적이다.

## 100년의 역사 지닌 우리 잡지의 과제

1986년 창간된 《대조선독립협회보》《친목회보》등을 효시로 출발한 한국잡지의 역사는 이제 100년에 이르고 있다.

공보처 집계에 따르면 95년 9월 30일 현재 잡지 발행종수(일·주간 제외)는 5361종에 이른다.

100년의 역사가 일구어 놓은 우리 잡지의 양적인 증가다. 이밖에도 최근들어 우리 잡지는 대다수의 독자를 대상으로 한 종합지

에서 점차 소수의 전문적인 독자들의 정보 욕구에 타격을 맞춘 전문지로 세분화되어가는 추세다.

그러나 나날이 발전하는 영상매체의 화려한 공세속에서 우리 잡지를 튼튼히 지켜내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잡지협회의 남장우 기획실장은 “아무런 자격 제한 없이 누구나 잡지 발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잡지의 부침이 심한 것 같다”고 진단하고 잡지경영 참여에 대한 보다 신중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제안한다. 이와 아울러 신규등록만 해놓고 잡지를 내지 않아도 과태료 외에 별다른 조치가 없는 현행법의 느슨한 면도 부실한 잡지의 유통을 용인하는 한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이러한 잡지들은 과감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지적이다.

이러한 요건 외에도 우리나라 잡지들의 선정성이나 폭력성, 특성없는 편집과 내용 등도 넘어서야 할 과제로 지적된다. 자기만의 독특한 색깔을 지닌 잡지, 보다 전문화되고 가치있는 정보, 수준높은 내용을 담은 잡지, 인쇄쇄매체로서의 특징과 장점을 잘 살린 세련된 편집이 돋보이는 잡지야말로 독자들에게 오래 사랑받는 잡지일 것이다.

—박남정 기자